

“인간중심”, “기술근본”을 경영지표로 최고를 향해 노력하는

# 엠티엔시(주)

인간중심의 경영, 기술근본의 경영, 사회핵심의 경영, 세계도약의 경영 이라는 경영지표처럼 고객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직원이 6명인 소규모 업체지만 전사원이 연구개발과 생산에 1인 2역의 마음을 가지고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www.mtn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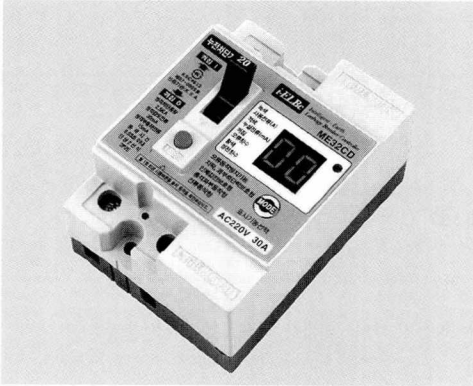
엠티엔시(주)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기술의 핵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창조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 전원, 정보통신, 에너지, 계측제어, 소프트

웨어 및 방송시스템 개발에 많은 성과를 가져와 현재 전원 자동복구장치분야에만 연간 10억 매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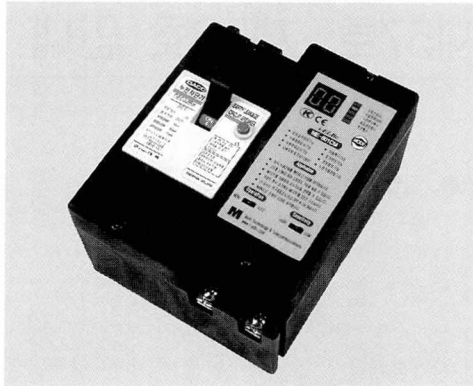
벤처기업인 엠티엔시(주)는 2001년 전원자동복구장치로 사업을 시작하여 누전차단기의 2차에서 누전, 과부하, 지락과, 정전발생시 누전차단기보다 먼저 전원을 차단하여 각종장비를 보호하고, 일정시간후에 전원을 다시 투입하고 또한 장비의 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전류, 누설전류, 누전복구횟수, 써지경보횟수, 정전횟수 등을 표시하여 장비운용에 효과를 줄 수 있다. 누전차단기는 일반적으로 각종 충격과 등으로부터 잦은 오동이 발생하고, 누전차단기 레버가 트립되어 산업전반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금번에 새롭게 개발한 오동작방지누전차단기는 충격과 등으로부터 원충작용을 하여 오동작방지기능을 구현해 기존의 누전차단기를 대체가 가능하며 또한 누전차단기가 사용전류표시, 누설전류표시, 오동작방지기능횟수 표시 등을 구현하여 신개념의 누전차단기이다.

엠티엔시(주)는 전원자동복구장치분야에 특허인증 2건과 유럽CE인증, K마크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등을 취득하였으며, 오동작방지



【사진 1】오동작 방지 누전차단기 ME32CD



【사진 2】전원 자동복구장치 ME\_801CM

누전차단기에 관한 특허 3건을 현재 출원 중  
에 있다.

엠티엔시(주)는 그동안 각종 이동통신 3사와 케  
이블 방송국, 수자원공사, 기타 관급 등에 납품하  
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엠티엔시의 주요 개발분야는 지능형전원자동  
복구장치, 오동작방지 누전차단기, RF Signal  
Generator, 광선로시험기, Microwave Motion  
Sensor Module등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전  
원자동복구장치와 오동작방지누전차단기는 국  
제 PCT출원 및 특허출원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이고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유럽  
과 일본등지에 지사화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호  
응을 얻고 있으며 오동작방지누전차단기는 국내  
규격은 물론 전세계 수출을 추진하여 제품판매가  
기대된다.

挑戰(도전), 人和(인화), 創造(창조)라는 社訓(사  
훈) 아래 이동통신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기술  
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핵  
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경영, 기술근본의 경영, 사회핵심의

경영, 세계도약의 경영이라는 경영지표처럼 고객  
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직원이 6명인  
소규모 업체지만 전사원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책  
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전기제어관련분야의 제품을 양산하여 현재 시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의 광  
전화기, RF 신호발생기 등의 차세대 주요산업분  
야의 장비들도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이야말로 회사의 경쟁력이다' 라  
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하고 고민하며 지금도 열  
심히 노력해 가고 있다.

앞으로 산업전반에 꼭 필요한 제어계측분야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장  
비개발은 "회사의 관건이다"아래 엠티엔시는  
새로운 장비 개발에 개발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문의 : 042- 471- 8457